

元老科學技術者의 證言

“學問에는 에누리나 外交言辭가 필요없다”

韓龜東博士篇

◇ 藥學과 인연을 맺다 ◇

한집건너 茶房, 두집건너 撞球場, 세집건너 藥局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藥은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나역시 藥學을 一生의 業으로 삼아온 사람으로 이처럼 발전한 우리 藥界를 보면 萬感이 交叉한다.

어린시절, 집안이 넉넉치 못했던 나는 高等普通學校를 마치고 곧 바로 社會에 뛰어들어야 할 형편이었다. 학교진학이란 그저 남의 일이라니 여기고 있던 차 堂叔되시는 분이 진학을 강력히 권했다. 이분은 自手成家 한분으로 학업을 중간에 그만 둔다는데에 본인인 나보다 더 애석해했다. 그도 그럴것이 高等普通學校 졸업을 얼마 앞두고 官費日本유학생을 모집했는데 담임선생추천으로 유학까지 결정되었지만 환·진갑이 다지나 아버지님을 모시고 있던 내가 혼자 훌쩍 떠나 가지도 못하고 또 집안이 넉넉치 못하다 보니 우선 당장 집안을 꾸러가야 할 처지였다. 이때 우리 아버님은 나의 일본유학을 말려 자식의 앞날을 막을수도 없고 가라고 할수도 없어 며칠을 앓고 계셨는데 이를 눈치챈 내가 日本行을 포기했었다. 이런 전후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堂叔이라 진학을 권유하는 強度가 상상을 절할 정도 였다.

그러나 이 권유를 받아들여 학업을 계속키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미 입학시기가 지나 藥學專門學校만이 남았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京城 藥學專門에 入学하게 됐으며 이때부터 藥學과의 관계가 맺어졌다.

학교에 다닐때는 운동 특히 野球에 열심이였다. 乘馬와 더불어 나의 무료한 일상생활을 달래준 야구는 선수로도 뛰었는데 서울大 各單大 新인인 高等商業, 水原高農, 京城醫專등과 시합을 벌여 여러번 우승의 감격을 맛보기도 했다.

어렵게 학교를 마치는 했으나 집안 살림을 하려다 보니 就職이 急先務였다. 이때도 3学年 쯤이면 갈곳이 생겼는데 공부도 더할수 있고 돈도 버는곳이 없을까 찾아 보았더니 지금 保健研究院의 아주 오랜 前身인 朝鮮總督府衛生試驗所가 적격이었다.

그당시 研究棧閣으로는 유일한 이試驗所에 들어간 후 해방 다음해 專門學校 교수로 전임할 때까지 16년간 나는 研究에 몰두할 수 있었다.

◇ 衛生試驗所 時節 ◇

그때 藥學界는 아주 보잘것 없었다. 어느 분야나 章創期에는 다 겪는 일이지만 藥學界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교육기관으로는 朝鮮藥學校(京城藥學專門學校), 城大醫學部에 生藥研究所

(지금 서울大 附設 生藥研究所 전신으로 開城에 있었음), 藥理學 교실에 몇 분이 고작이었고 연구기관으로 衛生試驗所가 대표적이었다.

이때의 위생시험소는 지금 保健院과 성격에 큰 차이가 없었다. 순수한 연구기관이라기 보다 행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곳으로 연구는 하지 않았다. 예산도 보잘것 없었고 정식 직원이라야 내가 입소 할 때만 해도 일본인 두 명뿐, 나와 함께 일본인 한 명이 같이 들어가 모두 4 명이 될 정도였다.

입소 1년간은 南山 밑 憲兵司令部의 조그만 방에서 주로 試驗업무만을 했다. 음식물試驗, 일본에서 들어오는 壳藥검사가 주업무였으며 癩病환자 치료 약인 대풍자油에서 유효성분을 뽑아 효과가 좀더 낫은 합성약을 만들어 소록島로 보내는 것도 당시 중요한 업무의 하나였다.

그당시 所長으로 있던 日本人은 학문에 무척 열심이었다. 시험소가 지금 업무에만 매달려서는 발전이 없으니 연구도 좀 하자고 항상 우리들을 격려했고 그때부터 각종 試驗方法을 만드는 한편 조금씩 연구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때 전국 13개 道에는 각각 1개씩의 시험소가 있었는데 이곳에 근무하는 기술자들을 뒷바침해주는 것도 서울에 있던 시험소의 일이라서 지금 保健院 업무인 藥品檢定, 食品収去檢査, 許可등은 일체 道에 맡기고 中央은 기술지원과 연구에만 전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보잘것 없었던 예산도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연구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4 個 研究課題에 專念 ◇

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온 연구는 4 가지 - 韓國의 榮養問題, 韓國의 食品榮養値分析, 溫泉조사, 生藥成分연구등이었다.

榮養관계 연구는 전국을 조사, 실제 부엌에 들어가 무게도 달고 요리를 해서 먹어 보기도 해 우리나라 영양학의 기초를 이루려고 애썼다.

溫泉조사를 위해서는 전국 43개 온천을 모두 답사, 성분을 분석하고 우리몸에 미치는 효과를 하나씩 검토했다.



◎ 略 歷 ◎

- 1980. 10. 18. 서울出生
- 現注所 서울持別市 恩平區 大秦洞 190-23 TEL. 389-4328
- 1930 朝鮮藥學校卒
- 1945 中央化學研究所長
- 1950 서울大藥大教授
- 1951 同學長
- 1952~1966 大韓藥學會會長
- 1954 學術院會員
- 1956 藥師會長
- 1963 서울大에서 藥學博士
- 1964 서울大生藥所研究所長, 同研究教授
- 1974 서울大各營教授

▲ 黃條素星勳章, 文化勳章, 學術院賞

말하자면 해방전 우리나라의 現代의 藥學에는 이곳의 역할이 말할 수 없이 컸다. 물론 이곳에서 연구된 결과는 그때마다 朝鮮藥學會會誌에 발표하곤 했다.

이곳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우리나라 藥界를 이

끌고 있는데 蔡東圭, 沈吉淳, 白南豪, 鞠塚豪, 韓寬燮씨등이 짧게는 2~3년, 길게는 10여년 차이를 두고 이곳에서 근무했다.

◇解放后의 藥界◇

衛生試驗所에 근무하고 있던중 서울에서 해방을 맞았다. 곧이어 日人들이 물러가고 시험소를 인계받아 所長이 된 나는 이름부터 고치기로 했다. 당시 美軍政고문인으로서 National Chemistry Lab.로 하고자 제의, 이를 받아들여 中央化學研究所로 이름을 바꾸고 보건사회부 산하기관이 되었다.

이때 우리나라 藥界에는 3갈래의 출기가 있었는데 開城에 있던 生藥研究所는 吳鎮燮박사가 所長이 되어 이끌어 나갔고 藥學專門學校에서 私立서울藥學大學을 거쳐 정규대학으로 발전한 서울 藥大는 도봉섭씨가 學長이 되었고 위생시험소는 中央化學研究所로 개명하여 내가 所長이 되어 三頭體制에 의해 우리 藥界가 운영되어 왔다.

◇大韓藥學會의 發足◇

1930년대 말, 유일한 藥學 단체로 발족한 朝鮮藥學會는 會長을 비롯한 간부진이 모두 日本人들 뿐이었고 유독 한국인으로는 내가 간사를 맡아 보고 있었다. 해방과 동시에 우리 손에 넘어오기는 했지만 교육기관 연구기관 할것 없이 극도의 좌·우翼충돌로 이렇다할 일도 하지 못하다가 6.25사변을 맞았다. 釜山으로 피난을 가 조금 자리가 잡히어 가던 1951년, 藥學會를 재건하기로 뜻을 모은 몇몇이 大韓藥學會를 創立하고 내가 초대會長이 되었다. 이후 15년간 회장직을 맡았는데 이때 會員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종사자가 대부분이었고 부산에서의 3년에 걸친 피난시절에는 창설했다는데 뜻이 컸을뿐 활동은 별로 없었다. 그래도 대한약학회는 한번 출간했는데 활자를 써서 제대로 인쇄한 것이 아니고 프린트로 만든 영성한 것이었다. 약학회의 활동은 1954~55년 수복후 부터 본격화했다.

◇서울大 藥大에 자리잡다◇

中央化學研究所長직을 맡은지 1년만에 소장직을 물러난 나는 서울藥大전신인 私立서울藥學大學으로 옮겨 1946년 부터 50년까지 근무하다가 國立서울大藥大로 개편(1950. 9. 30日字)되는 바람에 자연히 옮겨 初代學長이 되었다. 그러나 그해 12월 그 유명한 1·4 후퇴로 다시 피난길에 올라 1953년 還都와 동시에 서울로 올라왔다.

그때는 옛날 訓練院자리였고 몇 해전까지 서울 音大가 사용했던 乙支路七街 건물에서 교육을 했다. 1년쯤 지났을까 서울大over-all plan 즉 분산된 캠퍼스를 묶어 聯合大가 아닌 綜合大로 키우자는 계획에 따라 醫藥系를 한 캠퍼스에 묶어 메디칼 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醫大·藥大·齒大가 지금 서울醫大캠퍼스에 물이게 되었다. 藥大가 醫大캠퍼스에 들어가자 假校舍에 있던 音大가 약대건물에 뒤이어 들어갔다.

1954년 文化保護法이 제정되어 문화인 등록이 실시되고 그중에서 몇사람을 선정하여 학술원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이때 나도 위원이 되었다.

학교강의는 生物化學를 중심으로 56년 서울大藥大교수가 된후부터 74년 停年퇴직때까지 계속했으며 그뒤로도 많은 제자들이 藥大 간부급으로 있는 덕택에 서울大明예교수로 계속하고 있다.

강의 틈틈히 내가 좋아하던 분야의 연구도 계속했다. 藥大學長시절 즉 1964년에서 74년까지 生藥研究所長을 겸하면서 우리나라 생약성분등을 계속 추적했고 그중에서도 희침이라는 漢藥 성분연구에 특히 관심이 깊었다. 그러나 이 분야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製藥産業의 發展◇

6·25사변으로 없어지기는 했지만 開城에 있던 生藥研究所는 제약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 연구소는 그 때만 해도 시설도 좋았고 조직도 아주 잘 되어 있었다.

그러나 6·25후 서울로 내려와서 吳鎭燮씨가 주임교수로 있던 서울大醫大의학부藥理學교실 3개를 빌어 초라한 출발을 시작했고 지금처럼 좋은 시설과 조직을 갖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들었다.

일제시·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이란 거의 없다시피했다. 있는 것이라곤 日本人들이 경영하는 것들뿐, 그나마 일본에 있는 대규모 제약회사들의 한국내 판매소 역할을 할 정도였으며 회사다운 회사가 없었다. 한국인이 운영한 것으로는 규모는 적으나 금강제약(故 전용순씨), 월명수가 주력제품이었던 동화약품, 유한양행 등이 전부.

해방이 되자 제약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일찍 발전을 보았는데 藥學界가 산학협동 이라는 뚜렷한 목표아래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 藥學의 발전이 제약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것은 부할수 없으며 藥學을 전공한 사람이 직접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상당수에 이르고있다.

◇ 藥學界에 대한 바람 ◇

학교를 나온 후 지금까지 연구나 교육기관에만 있다보니 산업계에는 아주 門外漢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아야 교육·연구기관에 국한 될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그동안 외국학계를 몇번 돌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學問에는 王道가 없다」는 진리이다. 비록 言語는 짧아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있어도 학문연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연구발표에는 반드시 반응이 있게 마련이다. 어느 테마나 자기 혼자서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경우를 보면 “당신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중소”하는식으로 즉시 교환계획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몇번 하다보면 보다 친숙해져 “내방에 이런 학생이 있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좀 부탁한다” 면 쾌히 받아들여 제자들에게 유학길 까지도 트이는 일이 많다.

이처럼 자신에 충실한 연구는 학문을 통한 지식교환, 후배양성등에 아주 좋을 뿐아니라 자신과 藥學界전체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제 우리 학자들도 한국인으로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계속의 한국인이라는생각을 항상 갖어야겠다는 느낌이 시간이 갈수록 절실해진다.

남시에는 고기가 걸려들듯 연구결과만 좋으면 계속해서 좋은 일이 걸려들게 마련이다. 우리 既成世代는 이런면이 좀 부족한 편인데 「학문에는 에누리 가 없다. 外交言辭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모두 갖어야 할 것 같다.

회원등록수로 본 在美科協의 성장

1971년 창립 이래 KSEA(在美科學技術者協會)의 성장을 연도 별 회원 등입록에 비추어 보았다.	1972년	430	430	현 KSEA회원수는 그간 귀국한 회원 또는 탈퇴한 회원을 삭감하면 2073명에 훨씬 못될 것이
회원 제 1호는 1972년 1월16일	1973년	269	699	고 금년 3월31일 현재 79/80년
입회 신청한 박상신 박사(현 미 국립암연구소 재직)이고 3일후	1974년	476	1175	도 회비를 낸 회원수는 580이며
에 입회신청한 유두영회원(귀국)	1975년	39	1214	6월 현재 대략 650명에 다다른
이 회원 제 2호다. 입회신청년도	1976년	137	1351	다. 현재 Mailing list에 수록된
별 KSEA의 회원등록수는 아래	1977년	211	1562	재미 한국과학 기술자수는 2500
와 같다.	1978년	220	1782	명이고 새로 발행될 총람에 수록
	1979년	183	1965	될 수는 1700명이다.
	1980년	118	2073	